

제 137호 동기부여 방법 2. 목적의식을 준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그 비좁은 공간에서 몸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데도 불구하고 책을 붙잡고 공부에 몰두하는 대학생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유심히 보면 열에 일곱 여덟은 영어 참고서지요. 학생 모두 다 영어 전공이 아닐텐데 전공 대신 영어에 그토록 매달려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공부가 좋아서일까요? 다른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듯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해야 할 전공 공부마저 제쳐놓고 우선 영어 공부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교과서 대신 영어 책 펴놓는 학생이 있다하지 않습니까.

목적의식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의 중요성이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단계끔 전달된다면 교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첫 방법이 목적의식 심어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적의식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목적의식과(예를 들어 공대생의 경우) 열역학을 배워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영어의 중요성은 구체적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TOEIC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 "유학 가려면 TOEFL 점수 600점은 받아야 한다." 목적에 뚜렷한 결과와 달성 기준이 있습니다. 열역학의 경우와 비교해 보지요. "열역학은 필수 과목이다." "유능한 엔지니어가 되려면 열역학 이론을 알아야 한다."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라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대충 졸업할 수 있는데...

물론 열역학의 중요성을 영어의 중요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에게는 한 학기 내내 그 과목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그 과목의 중요성이 교수님의 말씀으로, 몸 동작으로, 눈빛으로 전달되면 학생들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간단한 숙제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과 다른 (특히 나중에 들어야 하는) 과목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열역학이 유체역학과 열전달 과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2. 현재 배우는 내용이 졸업 후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배 학생, 엔지니어, 또는 대학원생으로부터 열역학 이론의 쓰임새를 알아보게 한다.
3. 도서관에서 전공관련 학술지 또는 출판물을 훑어보고 현재 배우는 내용의 유용성을 알게 한다.

4. 현재 배우는 내용을 일상생활에 연관해보게 한다.

물론 어느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 조벽, 2001